전국 홍보캐릭터 광주 총집결…'캐릭터 대전' 열린다



광주시, 24일 시청서 축제형식 진행 광주 '빛돌이·빛나영' 결혼식 콘셉트 전국 지자체·기관 31개 캐릭터 참여 '골든벨·홍보부스·포토존' 행사 다채

광주광역시 홍보캐럭터 '빛돌이·빛나 영'의 결혼 축하를 위해 전국의 캐릭터들 이 광주에 총집결한다.

1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시청 앞 빛의 정원에서 광 주시 대표 홍보캐릭터인 '빛돌이'와 여자 친구 '빛나영'의 결혼식을 콘셉트로 한 '2025 광주 홍보캐릭터 대전'을 개최한 다.

'광주 시민의 날'과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23개 지자체·기관의 31개 캐릭터가 하객으로 참여해 '빛돌이'의 결혼을 축하하며,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와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캐릭터와 교류를 통해 광주를 효과 적으로 알리고, 시청 야외 공공예식장 '빛 의 정원'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 회해다

행사에는 광주 동구 '충장축제프랜즈', 서구 '서해온', 북구 '부끄&부부'를 비롯 해 서울 '해치', 부산 '부기', 대구 '도달 쑤', 경기 '봉공이', 수원 '수원이', 공주 '고마곰' '공주', 광양 '매돌이' 등 여러 도 시의 대표 캐릭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교통공사,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무등산국립공 원관리공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공공기관 홍보캐릭터들도 시민들과 만나 유용한 생활정보와 주요 정책을 안내한 다.

광주지역 콘텐츠 기업이 선보인 '두 다', '마법소녀 디디', '다이노맨' 등 지역 창작 캐릭터들도 행사에 함께하며 문화콘 텐츠 홍보에 나선다.

부대행사로는 △미니 체육대회 △정책 골든벨 △캐릭터 홍보부스 △네컷 포토존 등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 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박광석 대변인은 "이번 행사는 캐릭터 를 매개로 광주시의 정책, 행사, 공간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복합홍보의 장"이 라며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시정홍보 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빛돌이' 결혼식이 열리는 시청사 공공예식장 '빛의 정원'은 예식장 대관료 부담 없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주 목받고 있다. 지난 4월 2쌍이 결혼식을 올 린데 이어 5월 1쌍, 9월 5쌍, 11월 2쌍이 예약을 마쳤다.

광주시 홍보캐릭터 '빛돌이'는 2000년 처음 탄생했으며, 2023년 8월 귀엽고 사 랑스러운 이미지로 리뉴얼된 이후 인스타 그램(@shining_stone.gj)을 통해 시정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인플루언서로도활 약하고 있다.

정상아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토양 관리 실효성 강화

오염조사 신뢰도 제고 목표 올해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토양환경 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20 일까지 한 달간 22개 시군 164개 지점을 대상으로 '2025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기 술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기술지원은 시군 토양환경 담당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토양 시료의 대표성 확보와 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현장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방치 주유소 등 중점 오염원 지역과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우선 방문해 시료채취 방법과 기록 절차에 대한 체계 적 현장지도도 함께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표토·심토 구분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 △적정 용기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분석을 위한 메탄올 시료 채취 △시료의 운반·보관시 유의사항 등이다. 실무 현장에서 즉시활용 가능한 기술 중심으로 이뤄진다.

토양 시료 채취 과정은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 중하나다. 동일 지역에서도 채취 방법이나과정에 따라 오염 농도가 크게 달라질 수있기 때문에, 올바른 시료 채취는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보다 정밀한 토양오염실태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단계로 꼽힌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토양오염 실태조 사를 실시, 22개 시군 169개 지점에서 채 취한 238건의 시료 중 3건에서 유해 중금 속인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정밀조사 명령 등 후 속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

오지현 기자

신품종 수국 전남도가 개발·육성한 연분홍색의 썸머스타, 분홍색의 핑크유 등 수국 신품종을 공개한 가운데 19일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에서 어린이들이 오색 수국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장은 수국 신품종 관람 차원에서 원예연구소를 21일까지 개방한다고 밝혔다. 김양배기자

전남도, 1004억 투입 고품질 조사료 생산 지원

108종 장미 '활짝'…광주시청 장미원 조성

도심 속 대표 힐링 명소

광주광역시청 '장미원'이 다채로운 장 미꽃으로 물들며 도심 속 대표 힐링 명소 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청 한켠에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장미원을 조성했다. 장미원에는 장미 108종 4780그루를 비롯해 라벤더 등 허브식물 1만1320본, 초화류 1750본 등이식재돼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장미 생육상태가 더욱

좋아 장미원 전체가 꽃물결로 뒤엎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설치한 '사랑의 서약' 포토존과 장미터 널, 조형물 등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풍 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장미 생육상태를 고려해 추가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미는 5월말까 지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또 오후 7시30분부터 밤 10시30분까지 야간조명을 점등해 시민들에게 낭만적인 밤 산책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업체 숙련도 평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일부 터 29일까지 8개 대기측정 대행업체를 대 상으로 '대기 분야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 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광주보건환경연구 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굴뚝에 서 배출되는 굴뚝먼지의 시료채취와 배출 가스 자동측정기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 해 매년 공동으로 대기 숙련도 평가를 진 행하고 있다.

굴뚝먼지 시료채취 평가는 준비안전점 검, 채취장치구성, 누출확인시험, 시료채 취과정, 시료채취숙련도, 결과 산정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적합', 80점 미만 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부적합 판 정을 받은 업체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 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예비 항목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에 대한 자동측정기 운영능력 평 가도 이춰진다.

지난해에는 대기측정 대행업체 9곳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해 9개 업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기 측정 대행업체의 분석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흡한 부분은 교육과 기술 지원 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기자

기계·장비 구입 등 11개 사업 "사료비 절감·농가 경영 안정"

전라남도가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1004 억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와 조사료 경영 체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비롯해 조 사료용 기계·장비 구입 등을 집중 지원한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조 사료 재배면적의 36%에 해당하는 6만ha 를 재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사료 주산 지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해오고 있다. 도는 조사료 재배와 수확을 지원하기 위해 11개 사업에 걸쳐 총 1004억 원을 도내 영농조합법인 등 조 사료 경영체와 축산·경종 농가에 지원한 다. 올해 주요 지원 항목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650억 원,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122억 원, 조사료 종자 구입 115억 원, 퇴 비·액비 지원 38억 원, 가공유통시설 17 억 원, 입모중 파종 18억 원, 품질관리 7 억 원, 품질등급제 37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전 남 지역 6만ha에서 생산된 조사료에 대해 ha당 동계 114만 원(톤당 6만3380원), 하계 221만 원(톤당 6만3380원)이 지원 된다. 품질등급제를 적용받은 유통판매용 조사료의 ha당 최대 259만 원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조사료 재배·수확·운송에 필요한 트랙 터, 결속기, 랩피복기 등 장비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단지는 수확면적 20ha당 1억5000만 원, 전문단지는 70ha 당 3억 원으로 총 122억 원을 조사료 경영 체에 지원한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추진 한 조사료 가공시설 공모사업에는 진도 홍미향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 17억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도는 조사료 재배의 단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1만7000ha 규모 의 전문단지에 대해 사일리지 제조·운송 비, 종자, 퇴비·액비 등을 일괄 지원한다. 올해 기준 전문단지 지정 현황 총 47개소 1만7052ha다.

김성진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 은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의 36%를 차지 하는 국내 최대 고품질 조사료 생산지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안정적 경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휴 농경지를 적극 활용해 조 사료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 한 축산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 모바일 전남일보m.jnilbo.com